

사회

“담임 좀 맡아주세요”

광주 초등 교장들 신학기 교사 배정 ‘골머리’

심각한 女超에 임신교사 많고 고학년 기피 현상

광주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신학기 담임교사 배정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여교사들이 생활지도가 힘든 고학년 담임을 꺼리는데다 심각한 교사 여초(女超) 현상으로 임신중인 여교사가 늘어나면서 담임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실정 때문에 A교장은 이번 방학동안 각종 체널을 통해 담임을 빼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교장은 “여교사들이 5·6학년 담임을 꺼리는 데다 올해에는 6명이 임신을 해 담임 배정이 정말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학교는 40여명에 이르는 교원이 30여개 반을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보건, 영양교사 등 5명을 빼면 5명 정도만 담임배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의 또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올해 연구교사로 지정된 이 학교는 출산을 3~4개월 앞둔 여교사와 임신 중인 여교

사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담임 배정에 비상이 걸렸다. 연구학교는 추가되는 업무가 많아 연구부장 등 일부 교사들이 담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올 상반기에만 출산 예정인 여교사가 2명인데, 임신 중인 여교사도 2~3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출산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담임을 맡기 곤란하다고 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여교사가 학기중 출산을 해 담임 배정이 정말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각 초등학교는 18일로 예정된 시교육청의 교원인사 이후 담임을 배정해야 하는데 상당수 여교사들이 5·6학년 반 맡기를 꺼리는 것은 물론 임신 등을 이유로 담임 자체를 맡기 싫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여교사들의 고학년 담임 기피 현상으로, 그해 첫 임용된 ‘새내기 교사’나 1~2년차

의 젊은 교사들이 5·6학년 담임을 맡는 일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고학년 학생들은 차별화된 생활지도는 물론 중학교 입학에 대비한 수업 진행 등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참급 교사가 맡아왔다.

여기에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여교사 비율이 77.7%에 이르면서 임신 등 특수한 사정으로 담임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교사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임신중인 한 여교사는 “정부에서는 각종 인구조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모성을 보호받는 일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여교사의 경우 고학년 남학생의 지도가 벅잡다는 이유로 담임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임신을 했을 경우엔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면서 “교사의 수를 늘리든가, 남자교사의 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복 이월상품 나눔행사

광주교육소비자문제연구소는 17일 서구 화정동 연구원에서 교복업체로부터 광주교 등 광주지역 28개 고교와 전남중 등 19개 중학교의 이월 교복상품 1천 점을 기증받아 ‘교복 나눔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19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베이트’ 의사·제약사 사장 징역형

제약사, 광주 종합병원 의사 2명에 ‘뺏돈’

정부가 최근 의약계의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뺏돈’을 받은 의사들과, 광주 등 전국의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전직 제약사 사장들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은 지난해 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지역 대형 병원 의사 7명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과장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병원 과장 정모(56)씨에 대해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뺏돈’을 건넨 혐의로(배임증제)로 기소된 전직 제약사 사장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전직 제약사 사장 손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 3곳의 리베이트 규모가 18억원에 달해 엄청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G사로부터 “약품을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과 골프비,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직 제약사 사장인 박씨는 자

사의 의약품 사용을 대가로 김씨와 정씨를 비롯, 전국의 병원 의사들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 등은 광주의 종합병원 과장 2명에게도 조영제 사용을 대가로 ‘뺏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배임수재)로 광주·전남 대형병원의 ‘간판급’ 의사 7명을 기소한 혐의에서 이들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형사처벌을 받는 이른바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품선거 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해남지원, 징역 6개월 선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박정재 판사는 1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농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해남지원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선 조합장인 조씨는 과거 금품 선거로 처벌 받

았는데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정 선거를 방지하려는 농협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조합장에 당선된 조씨는 선거를 앞둔 2008년 12월 23일께 이 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농협 이사였던 주모씨에게 100만원을 주는 등 3명에게 모두 18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자전거 운전 후방 주의 의무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문모(40)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오모(2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원침 (8040)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전교조 前교사 무죄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정환(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주부들 설 뒷풀이 고스톱 치다가-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설연휴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속칭 ‘고스톱’ 판을 벌인 정모(여·55)씨 등 주부 4명을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모 아파트에서 1시간여 동안 1점당 2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혐의.

○10년 이상 같은 동네 아파트에 거주하며 친하게 지내오던 이들은 경찰에서 ‘설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심심풀이로 화투를 쳤을 뿐’이라며 ‘판돈도 10만원 밖에 안되는데, 누군가 우리를 골탕먹이기 위해 신고한 것 같다’며 당혹스런 표정.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이클 선수들 훈련 중 충돌

강진 고갯길서... 서울 종합병원 옮겨 치료

17일 오전 11시10분께 강진군 작천면 평리 한 고갯길에서 훈련 중이던 경기도 의정부고 사이클팀 선수 조모(18)군과 정모(17)군의 사이클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군과 정군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 서울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경사가 50도에 이르는 급한

내리막길에서 평소에도 위험한 곳이다.

의정부고 사이클 팀 감독은 “사이클은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훈련과정에서 선수들끼리 충돌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며 “선수들이 너무 가깝게 달리던 중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져 서로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단란주점 건물에 학원 인가

동부경찰, 교육공무원 3명 ‘직무유기’ 입건

광주동부경찰청은 17일 학원설립에 부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원 설립등록을 해준 A(여·49·7급)씨 등 교육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당시 동부교육청에서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은 민원인이 학원 설립신청을 낸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어 설립 요건이 안된다

는 점을 알면서도 등록을 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 등 교육공무원 3명은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3층에 단란주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출장복명서에는 ‘교습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과 학원을 설립 하려던 민원인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ungnam' (성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holding a large object, with text in Korean and English. The text includes 'Sungnam' and '성남' and mentions 'Sungnam' and '성남'.